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김 태 산
경기대학교
행정복지상담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

김 청 송
경기대학교
사회과학과대학
청소년학전공 교수

최 은 정[‡]
경기대학교
사회과학과대학
청소년학전공 초빙교수

본 연구는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경기도에 소재한 육군, 공군, 해병대 용사 198명과 경상도에 소재한 해군 용사 30명, 총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총 20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가족탄력성과 군 생활 적응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과 가족탄력성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이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효과보다 가족탄력성을 통해 매개하여 군 생활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군 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하는 용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상담을 할 때, 가족탄력성의 수준을 높여주면 군 생활을 보다 적응적으로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과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언 및 추후연구의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가족건강성, 가족탄력성, 용사, 가족기능, 회복탄력성, 군 생활 적응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최은정,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학전공 초빙교수, Tel: 010-6631-6742, E-mail: apache74@hanmail.net

군 용사의 군 생활 적응은 군과 국가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과 군 가족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군과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군 복무 기간 동안 용사들의 군 생활 부적응은 전투력 손실과 사기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가족에게는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불안감을 야기시킬 수 있게 된다. 군 생활 부적응은 군기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군 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불안, 분노, 스트레스, 근무이탈, 구타, 가혹행위, 자살시도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홍강의, 2007). 따라서 군 생활 부적응은 ‘도움 장병’으로 사고유발 가능성이 높아 즉각 조치 및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이며 군 복무에 부적합하여 즉각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장병이기 때문에(장병 병영 생활 도움제도 분류기준 2019, 제232조의 2 관련), 장병들의 부적응 문제는 국가사회뿐만 아니라 개인과 군 가족에게 피해를 야기시키고, 나아가 국민 전체에게 위협적인 것으로 시사한다. 한편, Stouffer(1949)은 군 생활 적응을 개인이 군 생활에 행복감을 느끼고, 직무와 직위에 만족하는 태도와 군에서 부여한 임무에 대하여 사명감을 갖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군 관련 기사 및 연구에는 군 부적응으로 인한 복무부적합 판정과 중도 전역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속 보고 되어왔다(이동주, 2020). 근래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중도 전역한 용사의 수가 많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2017~2022년)의 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중도 전역한 용사의 숫자가 연간 5,000명 이상으로 중도 전역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중도 전역

용사 수는 약 3만 명으로 3개 사단 규모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출산을 저하로 인해 해마다 용사 입영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복무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중도 전역자가 증가해 군 병력 수급 전반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문화일보, 2022. 09. 1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부적응 장병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군 생활 적응을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군 생활 적응에 대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내적인 요인으로는 낙관성(오명자, 권재환, 박희연, 이주희, 2013), 자기분화(김해성, 김완일, 2016), 조기 부적응 도식(여해동, 김완일, 2016), 레질리언스(강중수, 2013), 비합리적 신념(정영제, 2013), 긍정적 사고(박미영, 2014), 내재적 동기(김정은, 2017), 자기효능감(김정은, 2013)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요인으로 부모애착(김옥란, 김완일, 임재웅, 2016), 가정폭력의 경험(정영제, 2013), 가족기능(송정애, 장정순, 이하나, 2014; 양정남, 최은정, 박순희, 형민, 2016) 등이 있었다.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사회적 기술(차주환, 이정하, 임성호, 2010), 대인관계(정영제, 2013), 상관과의 관계(구남웅, 최태산, 2009)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 입대 장병들의 연령이 대부분 20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자아 정체감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Erickson, 1968)라는 것과 개인 외적 요인으로는 군 조직의 특성상 새로운 사회환경, 폐쇄적이고 고립된 생활에서 적응을 해야만 하는 점(Gilbar, Ben-Zur & Lubin, 2010), 개인보다 조직이 앞선다는 점 등은 군 생

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들이 된다(김정은, 2013).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가족 관련 변인 중에는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이라는 변인이 있다.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개발한 연구(유영주, 이인수, 김순기, 최희진, 2013)에서는 가족건강성을 '정서적 유대감을 적절한 수준으로 잘 유지하는 가족이 가족 과정과 관계를 기능적으로 실행하여 가족구성원이 행복하고 가족이라는 체계로서 각 가족의 상태나 생활주기에 맞는 적절한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김혜신과 김경신(2011)은 가족체계 내에서 개인 및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가족 간 신뢰로운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건강성을 정의하였다. 즉, 가족건강성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서로 신뢰하며, 상호존중, 질적 유대감 형성, 자유로운 의사표현, 가족원간의 역할에 충실할수록 가족의 건강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건강성은 가족정체감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상호관계의 질이 가족구성원의 안녕감을 높이고 있다면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선행 연구들은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강명숙, 2015; 강부자, 최연실 2017; 김정희, 2018; 남연희, 노준, 김영삼, 2018; 이주원, 2019; 정미원, 2021).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연구를 통해서 가족건강성이 군 생활 적응에 정적인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장정기, 고재량, 김명숙(2014)은 해병대 용사를 대상으로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가

족건강성 하위요인인 가족 분위기, 활동 공유, 갈등조절 중 활동 공유와 갈등조절은 군 생활 적응에 정적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강명숙(2015)의 일반 용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족건강성 하위요인인 가족원 간의 유대감,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능력, 가치체계 공유 중 가치체계 공유가 군 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연희 등(2018)의 육군 용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역시 가족건강성 하위요인인 가족원 간의 유대감,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원 간의 문제해결능력, 가치체계 공유 중 가치체계 공유가 군 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강명숙(201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용사의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정희, 2018). 이렇듯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가족건강성은 장병들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가족관련 변인 중에는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이라는 변인이 있다. 가족탄력성은 1980년대부터 연구되어 개인의 탄력성에 대한 개념이 확장 및 발전하여 가족에게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cCubbin과 McCubbin(1988)은 가족탄력성을 위기 및 역경에 대응하는 가족 단위의 대처, 적응의 역동적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고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변화와 위기상황에 도전적으로 저항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보다 기능적인 가족이 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 차원, 속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Hawley와 Dehaan(1996)은 가족탄력성을 가족이 고위험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응적인 가족이 되기 위한 강점 능력으로서 시간의 호

름에 따라 적응하고 번영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가족탄력성 전국연합(The National Network for Family Resiliency: NNFR)에서는 가족탄력성을 삶의 도전을 긍정적인 결과로 귀결하게 하는 강점으로 구성된 가족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탄력성은 가족에 내재된 가족적응 유연성이 강한 것을 의미하고, 여러 선행연구들은 가족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정은 2017). 또한 가족의 지지가 크고 스스로 회복하려는 탄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용사일수록 군 적응수준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최인승, 2005; 최혜란, 박숙희, 2009)가 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가족 관련 변인 중 가족탄력성이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가족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 가족탄력성과 행복과의 관계는 정적으로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경, 박경애, 2012; 박진성, 2015; 장용수, 2016).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가족탄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진다. 박일과 고영건(2012)은 군 생활에서 개인이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군 조직과 자기 임무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낄 때 군 생활 적응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송정애 등(2014)은 병사들의 가족기능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군 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최혜란, 박숙희, 2009). 따라서 군 용사의 가족탄력성의 수준이 높으면, 이는 군 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주어 군 복무 기간 동안 적응도 잘 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시사한다.

가족건강성과 가족탄력성과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군 용사는 아니지만 특성화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족의 신념체계, 가족의 응집력, 가족구성원의 위기와 역경 극복에 대한 가족탄력성이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부(-)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김미림, 2018).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족건강성과 가족탄력성과의 관계를 볼 때 가족건강성이 높은 군 용사들이 군 생활 적응을 잘 하는 이유는 가족탄력성이 좋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은민(2017)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가족의 응집력을 높게 인식할수록, 가족강점이 높을수록, 가족자원이 많을수록, 가족통제감 등을 포함하는 가족탄력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탄력성이 가족건강성에 영향요인임을 밝혀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변인에 주목하고 군 용사의 군 생활 적응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족탄력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국내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김정은(2017)의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 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가 크고 수용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병사일수록 군 적응수준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최인승, 2005; 최혜란, 박숙희, 2009), 가족탄력성이 높으면 군 생활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탄력성은 삶의 만족감과도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가족탄력성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밝혀낸 연구가 있다. 김민경(2011)은 가족탄력성이 행복에 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면서 가족탄력성이 행복을 설명하는데 설득력 있는 변수임을 지지했고, 김선희(2016)의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탄력성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가족탄력성은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족탄력성이 높으면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상승한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군 용사의 가족탄력성의 수준이 높으면 행복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군 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주어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족관련 변인 중에서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나 가족탄력성과 군 생활 적응에 대한 연구는 있지만, 가족건강성과 가족탄력성을 같이 고려하여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건강성과 가족탄력성을 같이 고려하여 군 생활 적응에 가족관련 변인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알

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밝힌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 가족탄력성과 군 생활 적응 간의 관련성에 주목하였고, 가족건강성이 높은 군 용사들이 군 생활 적응을 잘 하는 이유는 가족탄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개인내적 및 개인외적인 요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알아본 연구는 있으나 가족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함께 알아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가족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에서 가족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면 가족탄력성이 부분매개역할로 작용하고 있는지 완전매개역할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 군 생활 적응, 가족탄력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매개



그림 1. 연구모형(완전매개모형)



그림 2. 대안모형(부분매개모형)

하는가? 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연구모형은 그림 1, 대안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000에 소재한 육군, 공군, 해병대 용사 198명, 경상도에 소재한 해군 30명, 총 228명을 대상으로 용사들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가족탄력성,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COVID-19로 인해 방문하여 설문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연구목적 및 내용을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익명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수집은 임의적으로 선정한 비무선적 표집방법의 주관적 판단표집인 비확률표집을 통해 이루어졌고, 설문지는

228부를 배포하여 228부를 회수하였으며, 전체 수집된 228부 중 결측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21부를 제외한 207부를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을 보면 계급은 이병에서 병장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상병이 가장 많았고, 나이는 만19세부터 27세까지였으며 만21세와 22세가 가장 많았다.

측정도구

가족건강성 척도. 본 연구의 가족건강성 척도는 우리나라의 가치관에 맞는 한국가족의 가족건강성 척도를 개발한 유영주 등(2013)에 의해 개발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KFSS-II’를 사용하였다. KFSS-II는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상호존중과 수용 5문항, 경제적 안정과 협력 3문항, 질적 유대감 4문항, 가족탄력성 7문항,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3문항으로 ‘항상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207)

항목	인적 특성	빈도(명)	백분율(%)
계급	이병	1	0.4 %
	일병	69	33.3 %
	상병	101	48.7 %
	병장	36	17.3 %
나이	19세 (만)	6	2.8 %
	20세 (만)	31	14.9 %
	21세 (만)	68	32.8 %
	22세 (만)	64	30.9 %
	23세 (만)	18	8.6 %
	24세 (만)	10	4.8 %
	25세 (만)	5	2.4 %
	26세 (만)	3	1.4 %
	27세 (만)	2	0.9 %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까지 5점의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영주 등(2013)의 연구에서 얻은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이고, 본 연구에서는 .92이다.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상호존중과 수용 .77, 경제적 안정과 협력 .80, 질적 유대감 .77, 가족탄력성 .74,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80으로 나타났다.

군 생활 적응 척도. 군 생활 적응 척도는 김옥란과 김완일(2014)의 연구를 통해 개발된 '군 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군 생활 적응 척도는 군 생활 가치, 애인관계, 심신건강, 업무능력, 선임관계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설문결과 하위요인 중 업무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군 생활 가치, 애인관계, 심신건강, 동료관계, 선임관계 등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채점 방법은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의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여 긍정 문항에 적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옥란 등(2014)의 연구에서 얻은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4이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5개 하위요인들의 신뢰도는 군 생활 가치 .71, 애인관계 .75, 심신건강 .70, 선임관계 .76, 동료관계 .76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탄력성 척도는 Walsh(1998)가 개발한 것을 박주연(2011)이 번역하여 구성한 자녀용 가족탄력성 척도를 김지은(2014)이 관련 전문가 4인을 통해 수

정 보완하여 타당도를 확보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신념체계(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 12문항과 조직유형(융통성, 연결성, 사회·경제적 자원) 10문항, 의사소통과정(명확성, 개방적 정서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10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의 Likert 척도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김지은(2014)의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5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신념체계 .81, 조직유형 .85, 의사소통과정 .82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전체 변인들인 가족건강성, 가족탄력성, 군 생활 적응 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Tolerance),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상태지수 값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설문 문항에 대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기술통계를 통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법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족탄력성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변인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제시한 각 변인들의 상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건강성은 군 생활 적응과 정적으로 중간크기의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 .46, p < .01$). 그리고 가족건강성은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군 생활 가치($r = .50, p < .01$), 애인관계($r = .21, p < .01$), 심신건강($r = .39, p < .01$), 선임관계($r = .25, p < .01$), 동료관계($r = .40,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가족건강성 전체와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가족건강성은 가족탄력성에도 정적으로 큰 크기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r = .77, p < .01$). 가족건강성은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신념체계($r = .74, p < .01$), 조직유형($r = .74, p < .01$), 의사소통과정($r = .76,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

표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207)

	1	1-1	1-2	1-3	1-4	1-5	2	2-1	2-2	2-3	3	3-1	3-2	3-3	3-4	3-5
1	-															
1-1	.93**	-														
1-2	.91**	.82**	-													
1-3	.94**	.81**	.82**	-												
1-4	.96**	.92**	.84**	.88**	-											
1-5	.80**	.64**	.72**	.76**	.68**	-										
2	.77**	.76**	.70**	.71**	.78**	.52**	-									
2-1	.74**	.73**	.66**	.68**	.74**	.52**	.97**	-								
2-2	.74**	.73**	.68**	.69**	.74**	.50**	.97**	.93**	-							
2-3	.76**	.75**	.70**	.71**	.78**	.48**	.96**	.90**	.90**	-						
3	.46**	.45**	.44**	.40**	.43**	.36**	.51**	.49**	.49**	.51**	-					
3-1	.50**	.48**	.47**	.43**	.47**	.45**	.54**	.54**	.51**	.52**	.86**	-				
3-2	.21**	.23**	.21**	.23**	.20**	.08	.27**	.22**	.27**	.31**	.69**	.40**	-			
3-3	.39**	.39**	.37**	.33**	.35**	.34**	.42**	.41**	.41**	.41**	.90**	.73**	.63**	-		
3-4	.25**	.29**	.29**	.21**	.25**	.10	.29**	.26**	.28**	.30**	.72**	.49**	.47**	.58**	-	
3-5	.40**	.39**	.39**	.33**	.43**	.27**	.45**	.42**	.42**	.48**	.79**	.69**	.37**	.61**	.67**	-
M	.44	.10	.06	.07	.14	.05	.61	.24	.16	.20	.60	.13	.09	.12	.07	.07
SD	.08	.01	.01	.01	.02	.01	.10	.04	.03	.03	.09	.02	.01	.02	.01	.01

* $p < .05$. ** $p < .001$

1 가족건강성 합, 1-1 상호존중과 수용, 1-2 경제적 안정과 협력, 1-3 질적 유대감, 1-4 가족탄력성, 1-5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2 가족탄력성 합, 2-1 신념체계, 2-2 조직유형, 2-3 의사소통과정, 3 군 생활 적응 합, 3-1 군 생활 가치, 3-2 애인관계, 3-3 심신건강, 3-4 선임관계, 3-5 동료관계.

다. 가족건강성 전체와 가족탄력성의 하위 요인 간에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비교적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과 군 생활 적응 또한 정적으로 큰 크기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r = .51, p < .01$). 가족탄력성은 군 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군 생활 가치($r = .54, p < .01$), 애인관계($r = .27, p < .01$), 심신건강($r = .42, p < .01$), 선임관계($r = .29, p < .01$), 동료관계($r = .45, p < .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가족탄력성과 군 생활 적응의 하위 요인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족건강성 전체와 군 생활 적응 전체, 가족탄력성 전체의 모든 요인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공차 한계값인 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인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간의 Tolerance(.50-1.0)는 모두 0.1 이상의 값을,

VIF(1.0-1.992)는 10보다 작은 값을 나타냈다. 상태지수는 15보다 큰 값을 보여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공선성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SPSS 20.0 프로그램의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가족건강성이 매개변인인 가족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 = .706, p < .01$), 2단계에서 가족건강성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beta = .371, p < .01$).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가족건강성과 매개변인인 가족탄력성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가족탄력성이 종속변인인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였다($\beta = .390, p < .01$). 그리고 가족건강성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에서의 회귀계수($\beta = .371, p < .01$)보다 3단계에서의 회귀계수가 감소하였으며($\beta = .096, p < .317$),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만족하는 것으로 가족탄력성은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의

표 3. 다중공선성 결과

		공차(Tolerance)	VIF	상태지수
1단계	가족건강성 → 가족탄력성	1.000	1.000	10.760
2단계	가족건강성 → 군 생활 적응	1.000	1.000	10.760
3단계	가족건강성 → 군 생활 적응	.502	.1992	10.804
	가족탄력성 → 군 생활 적응	.502	1.992	15.338

표 4. 변인의 기술통계치

(N=207)

		B	SE	β	t	R ²	F
1단계	가족건강성 → 가족탄력성	.88	.06	.70**	13.063	.49	170.648
2단계	가족건강성 → 군 생활 적응	.35	.06	.37**	5.244	.13	27.497
3단계	가족건강성 → 군 생활 적응	.09	.09	.09	1.587	.21	23.306
	가족탄력성 → 군 생활 적응	.29	.07	.39**	4.213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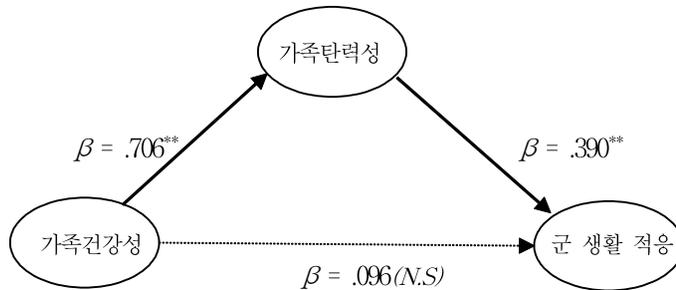


그림 3. 최종모형(완전매개)의 경로계수

Sobel Test Statistic Z=3.895, p<.001

주. *p<.05. **p<.001

그림 3.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하여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가 Z = 3.895로 값의 절대값이 1.96 이상이므로 가족탄력성의 통계적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용사의 부적응적 문제를 줄이고 보다 적응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부적응의 원인을 개인 외적 요소인 가족관련 변인에서 찾고자 하였다. 가족관련 변인 중 가족건강성과 가족탄력성이 군 생활 적응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고, 가족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가족탄력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또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총 228명의 군 용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21부를 제외한 207부를 분석하였고,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가족탄력성이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SPSS/WIN 20.0 프로그램과 Sobel 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으며($r = .46, p < .01$) 이는 일련의 연구들(구성본, 2010; 장정기 등, 2014; 강명숙, 2015; 강부자, 최연실, 2017; 손치현, 2017)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이 가족 간 유대감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높고, 가족 간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가족 간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건강성의 수준과 군 생활 적응도가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은 군 생활 적응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과 가족탄력성과의 관계도 정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을 때 스트레스에 적응하고 역경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가족탄력성과 군 생활 적응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r = .51, p < .01$). 이런 결과는 가족탄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의 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군 용사의 군 생활 적응에는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

과 가족탄력성의 수준을 주목해야 할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결과 가족탄력성은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이 군 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효과보다는 가족탄력성을 매개하여 군 생활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건강성이 높은 군 용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돕는 이유는 가족탄력성이 좋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군 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하는 용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상담을 할 때 가족탄력성의 수준을 높여주면 군 생활을 보다 적응적으로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족건강성과 가족탄력성 간의 상관이 높게 나와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가족탄력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건강성이 매개하는지도 살펴보아 가족건강성과 가족탄력성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이 두 변인간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두 변인 간 척도의 구성 및 상관분석 결과도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고 있는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중 가족건강성과 가족탄력성을 함께 연구하여 매개효과를 밝혀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군 장병의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가족탄력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

는 이루어져 왔지만 가족건강성, 군 생활 적응, 가족탄력성의 세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실시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이 세 변인의 상호관련성을 밝힌 것은 군 용사와 장병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돕는데 하나의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이 완전매개하는 경로를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가족탄력성은 군 용사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 용사의 군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가족건강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탄력성을 통하여 간접적인 경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크다는 결과에서 가족탄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등 전 군을 대상으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변인을 연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는 제한적이겠지만 전 군의 군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탄력성의 중요성을 주목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목적은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이 군 생활 적응에서의 영향력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에 있다. Walsh(1998, 2003)는 ‘부모는 가족의 건축가이자 가족을 부모가 구성하는 규칙, 역할 등에 의해 건강 강한 가족생활의 기반을 형성한다.’고 하였듯이 가족구성원의 가족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군 부적용

병력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적용 사례가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이동주, 2020)도 있고, 발달장애를 지닌 아동들에게 가족치료놀이를 적용하여 가족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홍정애, 2007)도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이 남녀 대학생의 대인불안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 가족탄력성을 가족치료 및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서진희, 2015)도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와 본 연구를 통해 군에서 부적용을 경험하는 장병을 상담할 때 개인 상담만으로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가족상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군 생활 적응을 위해 가족탄력성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Walsh(1998, 2003)는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는 모든 가족기능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탄력성은 강력한 원천으로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 행동을 이끌고, 결정을 내리는 등 일련의 기본적인 전제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신념체계에 대한 개입은 부모 자신과 자녀를 이해하고 가족이 하나의 체계로서 가지고 있는 역경에 대한 의미와 해석, 삶에 대한 시각과 영성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비난이 아닌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가족이 역경에서 극복했던 과정을 탐색하고, 또한 가족에게 그러한 역량과 힘이 있음을 통찰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수 있다.

셋째, 군 생활 적응을 위해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은 군 생

활 적응과 하위요인 전체와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의 수준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상담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군 생활 적응을 위해 가족탄력성을 향상시키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집단상담의 내용은 먼저 가족의 역사를 탐색하고, 가족의 중요한 가치 및 신념을 알아보는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집단상담자는 가족의 역사 탐구과정을 통해 개인의 삶 속에서 위기와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한 가족의 강점을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에 있어서 비난이 아닌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 욕구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정서표현 방법을 습득하는 활동(김청송, 2022) 등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가족탄력성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가족탄력성 수준이 높으면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양순미, 2004; 김민정, 박경애, 2012, 박진성; 2015; 김준호, 서종수, 2021),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김승돈, 김용환, 2009; 김사라, 김유숙, 2017),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최희정, 이인수, 2009; Elizabeth, Scharp, Sanders, & Beaty, 2020). 자아탄력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정숙희, 류수정, 2013), 군 생활 적응력이 높다는 연구(송정애, 장정순, 이하나, 2014; 김정은, 2017; 김정희, 2018)와 가족의 지지가 크고 수용적

인 가정에서 성장한 병사일수록 군 적응 수준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최인승, 2005; 최혜란, 박숙희, 2009)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 ***, ***이라는 특정 지역의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추후연구에서는 초급장교들을 대상으로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군 생활 적응 척도는 군인 대상으로 개발하였지만 가족건강성 척도는 일반인(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60대까지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개발하였고, 가족탄력성 척도는 박주연(2011)의 연구에서 타당화하지 않고 번역하여 청소년(한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건강성, 가족탄력성, 군 생활 적응의 척도를 개발한 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 가족탄력성 척도를 군 장병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여 척도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독립변인인 가족건강성과 매개변인인 가족탄력성간의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상태지수가 15 이상의 값(15.338)으로 나타났다. 추후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문을 더욱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넷째, 본 연구는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분석을 사용한 석사학위논문용 수정 보완한 것이므로, 추후 학술연구에서는 Process Macro나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통해 보다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다시 비교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군 장병의 적응을 돕기 위해 본 연구는 가족건강성과 가족탄력성을 변인으로 설정

하였으나 추후연구에서는 다른 가족관련 변인 중 가족기능, 가족구조, 가족응집력 등을 변인으로 설정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과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본 연구결과를 상담 개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인했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갖는 의의라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명숙 (2015). 군 입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부자, 최연실 (2017). 군 장병이 인지한 가족건강성이 군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지: 가족과 가족치료, 25(1), 137-153.
- 강중수 (2013). 병사들의 레질리언스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지, 13(1), 278-286.
- 구남웅, 최태산 (2009). 부하가 지각하는 직속상관의 유머감각 및 유머스타일과 부하의 군 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10(3), 1757-1768.
- 구성본 (2010). 가정환경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림 (2018). 특성화고등학교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경 (2011).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우울과 레질리언스 및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3), 109-127.
- 김민경, 박경애 (2012). 다문화가족 남편의 일상생활 갈등, 우울 및 가족탄력성과 결혼 행복과의 관계. 한국가족지원경영학회: 한국가족지원경영학회지, 16(1), 1-20.
- 김사라, 김유숙 (2017).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 : 가족탄력성과 사회적지지 의 조절효과.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과 가족치료, 25(4), 815-837
- 김선희 (2016).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탄력성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돈, 김용환 (2009).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45, 7-31.
- 김애리, 김완일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 연구, 18(2), 315-331.
- 김옥란, 김완일 (2014). 군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15(4), 1627-1646.
- 김옥란, 김완일, 임제웅 (2016). 군 병사의 부모애착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 집단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지: 청소년학연구, 23(12), 621-640.
- 김정은 (2013). 병사의 군생활 적응 위한 스트레스 대처 모델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회지: 한국군사회복지학, 6(2), 5-38.
- 김정은 (2017). 병사의 그릿과 가족탄력성, 군생활 적응의 구조적 관계와 진로 확신의 잠재평균분석. 한국군사회복지학회지: 한국군사회복지학, 10(2), 5-27.
- 김정희 (2018). 가족건강성과 회복탄력성이 초급부사관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군사회복지학회지: 한국군사회복지학, 11(2), 25-53.
- 김준호, 서중수 (2021). 대학생의 행복에 관한 연구: 외모만족감, 스트레스, 가족탄력성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학회: 청소년상담학회지, 2(4), 5-25.
- 김지은 (2014). 중학생이 인지한 가족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청송 (2022). 현대 청소년심리 및 상담 제2판. 경기: 씨이엔북스.
- 김태산 (2023). 군 용사의 가족건강성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행정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해성, 김완일 (2016). 공군 병사의 자기분화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 친밀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상담학회: 한국청소년학회지, 23(8), 241-263.
- 김혜신, 김경신 (2011).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인 남성부부의 가족 건강성 관련 변인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59-86.
- 남연희, 노준, 김영삼 (2018). 육군병사들의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이 군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OO사단의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국군사회복지학회지: 한국군사회복지학, 11(1), 157-179.
- 문화일보 (2022. 09. 15.). 복무부적합 중도 전역병사 '5년간 3개 사단' 규모...병력 수급 차질 우려.
- 박미영 (2014). 병사의 긍정적 사고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기 수용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일, 고영건 (2012). 정신전력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5(1), 105-124.
- 박주연 (2011).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한부모와 청소년기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진성 (2015). 예비유아교사의 공감능력과 행복감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1), 97-118.
- 손치현 (2017). 병사들의 가족건강성, 자기효능감, 군 생활 스트레스 대처가 군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통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애, 장정순, 이하나 (2014). 병사들의 가족기능과 군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군사회복지학회지: 한국군사회복지학, 7(1), 63-95.
- 양순미 (2004). 성별에 따른 농촌부부의 행복도와 가족건강성 변인의 효과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53-172.
- 양정남, 최은정, 박순희, 형민 (2016). 입대 전 인터넷중독수준과 군 생활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정책학회지, 14(11), 513-526.
- 여해동, 김완일 (2016). 병사의 초기부적응도식과 군 생활 적응의 관계: 탈중심화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학회지: 청소년학연구, 23(11), 291-311.
- 오명자, 권재환, 박희현, 이주희 (2013). 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군 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중재효과.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 연구, 14(2), 1051-1065.
- 유영주, 이인수, 김순기, 최희진. (2013).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 II(KFSS-II) 개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4), 113-129.
- 윤주태 (2003). 군 조직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주 (2020). 군 부적응 병력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의 적용 사례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원 (2019). 해병대 병사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대인관계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병 병영생활 도우메도 분류기준(2019), 제 232조 2 부대관리훈령. 국방부 훈령 제2273호.
- 장용수 (2016). 장애아동 부모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우울과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정기, 고재량, 김명숙 (2014). 해병대 병사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와 군 생활 적응간의 구조적관계 분석. 한국군사회복지학회지: 한국군사회복지학, 7(1), 97-125.
- 정미원 (2021). 특기병의 가족건강성, 자기효능감, 적극적 스트레스대처, 군 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숙희, 류수정 (2013). 기독교 대학생의 사회부적응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학회

- 지, 24(3), 207-237.
- 정영재 (2013). 가정·학교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른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 대인관계능력, 자아탄력성의 영향 구조분석.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주환, 이정하, 임성호 (2010). 병사의 부모애착, 낙관주의적 성향, 사회적 기술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학생활상담연구소*, 31(2), 283-298.
- 최인승 (2005). 군복무 부적응장애의 가족구조에 대한 목회상담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혜란, 박숙희 (2009).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연구. *한국상담학회지: 상담학연구*, 10(3) 1743-1756.
- 최희정, 이인수 (2009). 가족탄력성이 정신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대처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 가족과 가족치료*, 17(2), 175-194.
- 현은민 (2017).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탄력성이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3), 165-174.
- 홍강의 (2007). 2007년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 자료집. 서울: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 홍경애 (2007). 가족치료놀이를 적용한 가족탄력성 증진 프로그램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Elizabeth, D. H., Scharp, K. M., Sanders, M., & Beaty, L. (2020).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Support and Resilience on Students' Concerns About College. *Family Relations*, 69(2), 276-291.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Gilbar, O., Ben-Zur, H., & Lubin, G. (2010). Coping, mastery, stress appraisals, mental preparation, and unit cohesion predicting distress and performance: a longitudinal study of soldiers undertaking evacuation tasks. *Anxiety, Stress, & Coping*, 23(5), 1061-5806.
- Hawley, D. R., & Dehaan, L. (1996). "Toward a definition of family resilience: Integrating life-span and family perspectives." *Family Processes*, 33(3), 283-298.
- McCubbin, H. I., & McCubbin, M. A. (198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37(3), 247-254.
- Stouffer, S. A. (1949). *American Soldier: Adjustment during Army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Y.: Guilford Press.
- Walsh, F. (2003). Family resilience: A framework for clinical practice. *Family Process*, 42(1), 1-18.
- 원고접수일: 2023년 2월 6일
 논문심사일: 2023년 2월 21일
 게재결정일: 2023년 3월 30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23. Vol. 28, No. 3, 717 - 733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engths Affecting Soldier's Social Adaptation Military Life among Military Soldiers

Kim, Tae-San · Kim, Chung-Song · Choi, Eun-Jung
Kyongg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health and family resilience on adaptation to military life, and family resilience was set as a mediating variable to evaluate if there is a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A total of 228 people, 198 Army, Air Force, and Marine Corps veterans located in Gangwon-do and Gyeonggi-do and 30 Navy veterans located in Gyeongsang-do, were surveyed, and a total of 207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military veterans' family health and adaptation to military life had a positive significant correlation, and family resilience and adaptation to military life had a positive significant correlation. In addition, military veterans' family health and family resilien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health and military life adjustment showed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family resilience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This means that military veterans' family health has an indirect effect on military life adaptation through family resilience rather than an indirect effec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hen counseling veterans who experience maladjustment in military life to adapt well to military life, family resilience should be encouraged. Based on the purpose and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Family strengths, family resilience, soldier, family function, soldier's social adaptation